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6. 스페인 첫 저녁 식사

샴페인을 마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한참 떠들던 R과 나는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다. 피곤하기도 했지만 아침 식사 후로 제대로 먹은 것이 없어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밤 9시. 저녁 식사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여기는 스페인이다. 스페인 사람들은 저녁을 늦게 먹는다고 한다. 레스토랑도 대개 9시부터 오픈해서 12시까지 저녁 식사 서비스를 한다. 평소에는 먹을 준비가 아니라 잘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지만 스페인에 왔으니 스페인 사람처럼 느끼며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커다란 모직 스카프로 목을 단단히 감싼 후 호텔에서 나와 깜깜한 마드리드의 밤거리로 걸어 나갔다. 바깥 기온은 화씨 40도로 떨어져 있었다. 엄청나게 춥다. 맑은 날씨에 건조하기 때문에 더욱 춥게 느껴졌다. 우리는 까에 아마도르 데 로스 리오스 골목을 걸어 나와 큰길인 파세오 델 라 카스테야나 거리로 나왔다. 마드리드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한산했고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 거리로 나가면 타파스 바 혹은 레스토랑이 여기저기 눈에 띌 줄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큰 오산이었다.

큰길이 도리어 한산해서 우리는 다시 작은길로 들어섰다. 마드리드의 동네 골목을 걸어간다. 역시 사람들이 안 보이고 가로등만 쓸쓸하게 서 있다. 걸어가면서 계속 검색을 하는데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타파스 바까지 다 예약이 꽉 차 있고 예약이 없으면 두 시간 쯤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검색을 포기하고 R의 '마드리드에서 꼭 가 보아야 할 레스토랑' 목록 중에서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피스물러(Fismuler)에 가 보기로 했다. 주소는 까에 데 사가스타, 29, 마드리드. 걸어서 약 십 분 거리였다.

우리는 구글 맵을 보면서 마드리드의 밤거리를 걸어 갔다. 마드리드의 거리는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 통일성 있게 지어진 웅장한 건물들은 엄숙하면서도 절제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은 여전히 붉은

빛이 감돌았다. 드문드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시간이 늦어 그런지 많지는 않았다. 동상이 서 있는 광장이 나왔다. 알론소 마르티네즈 역이라고 써 있는 지하철 입구도 있었다.

드디어 피스물러 레스토랑을 찾았다. 장중한 건물 삼각 코너에 건성으로 보면 지나칠 정도로 작은 글씨로 '피스물러'라 써 있고 그 위에 조명이 비치고 있었다. 역시 조그만 입구를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경쾌한 음악과 와글와글한 사람 소리가 우리를 맞아 주었다. 어두컴컴한 실내에 아늑하게 조명이 되어 있고 스페인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모두 와인을 마시며 대화에 여념이 없었다.

입구 가까이에는 기다란 나무 테이블이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둥그런 테이블이 여기저기 있는 구조였다. 테이블에는 한 치의 틈도 없이 뽀뽀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일행이 아니라도 같은 테이블에 다 함께 앉아 식사하는 '커뮤니티 테이블' 스타일이었다. 벽에는 각종 피클을 담은 병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우리가 입구에 들어서자 날씬한 여자 직원이 다가와 예약이 되어 있는냐고 영어로 물었다. 한눈에 보기에든 관광객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다. 예약이 없지만 어디든 상관없으니 자리가 있으면 부탁한다고 잘 말했다. 영리한 눈매의 직원은 레스토랑 안을 순식간에 한 바퀴 돌아보더니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 보았다. 우리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우리를 기다란 테이블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거기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약간씩 비켜 달라고 하더니 우리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갑작스런 요청을 받은 스페인 손님들은 주춤주춤 하면서 자리를 내 주었다. 우리는 억지로 만들어 준 자리에 서로 마주 보고 끼어 앉는데 성공했다. 옆자리 손님들과 팔이 스칠 정도로 비좁은 자리였지만 따뜻하고 활기찬 마드리드 레스토랑에서 마침내 스페인 첫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기에 R과 나는 종달새처럼 즐겁기만 했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남자 컷 \$12^{UP} •여자 컷 \$20^{UP}
 - 펌 + 컷 \$50^{UP}
 - 칼라+컷 \$50^{UP}
 - 칼라+헤어트리트먼트 \$60^{UP}
- 좋아지는 고객의 머리결은 저희 기쁨입니다

모발 손상이 전혀 없이 뿌리 부분만 "하프 inch" 블록 실려주는

시크릿 하프 inch 펌

- 갈라진 가마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 볼륨있는 생머리 스타일이 가능해집니다.
- 납작한 머리형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예약을 우선합니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714)530-5755
8762 Garden Grove Bl. #106, Garden Grove, CA 92844(김치나라 건너편)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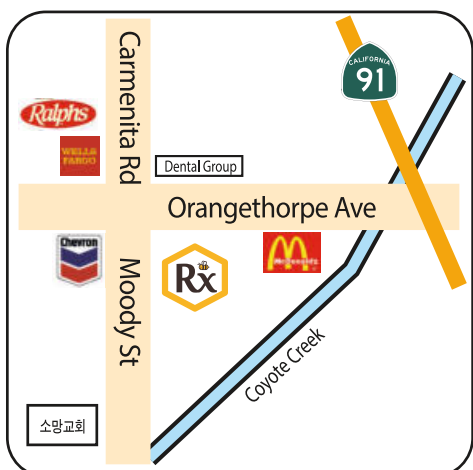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최고의 질병 치료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심각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
꿀약국 예방접종센터에 문의 하세요.

COVID-19 백신 접종 시작 **moderna**

건강한 약국, 꿀약국!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꿀약국TM
Honey Pharmacy[®]

가족같은 약국, 꿀약국!

Kaiser Permanente, Rite Aid
10년 약사 경력!



약학박사 로렌 민 / 약학박사 안젤라 권
매니저 벤자민 유

Tel: 562.403.2332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Fax: 562.403.2331

Honeyrx123@gmail.com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환영



Honeyrx